

# 孫秉熙의 政治思想에 대한 研究

鄭 鎮 午 \*

## 目 次

- |               |           |
|---------------|-----------|
| I. 序 論        | 3. 甲辰開化運動 |
| II. 孫秉熙의 政治思想 | 4. 政教分離   |
| 1. 人乃天        | III. 結 論  |
| 2. 三戰論        |           |

## I. 서 론

孫秉熙는 東學 즉 天道敎의 제3대 교주로서 1894년 갑오 동학혁명으로부터 1922년 별세할 때까지 62세의 평생동안 東學史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인물임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동학 내지 동학운동이 우리나라의 근대화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는 관점에서 볼 때 손병희와 근대화의 관계는 밀접하다고 할 것이다.

특히 손병희는 서자 출신으로 근대화의 거봉으로 꼽히게 되기에 이르렀는데 그 사이의 그의 사상의 변화는 곧 한국 근대화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

본고에서는 그의 사상 가운데 人乃天, 三戰論, 甲辰開化運動, 政教分離의 네 가지 사상에 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물론 3·1운동과 손병희의 관계를 비롯해서 1920년 대까지의 그의 사상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비교적 불명료한 상태에 있는 前期의 위의 네가지 사상을 고찰함으로써 그의 사상 특히 정치사상의 내용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그리고 그의 사상 가운데에서 현대 한국에 계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찾아 보고자 한다.

\* 社會科學大學 副教授

## II. 孫秉熙의 政治思想

### 1. 人乃天

초대 교주 崔濟愚의 侍天主思想은 인간이 곧 天이라고 하는 「人即天」「人乃天」의 범신론적인 범천주의까지 철저히되지는 못하고 그의 「侍天主」는 아직 인간 위에서 만물을 주재하는 上帝로서 혹은 「敬畏之心」의 대상으로서 만들어지고 때로는 天主를 모신 신비적 체험의 종교적 자각상태에 머물르고 있었다. 즉

무지한 세상사람 아는 바 천지라도 경외지심 없었으니

—고훈가—

의 경외지심은 천주에 대한 외경심이며 유학이나 사대부들의 외면적 박식보다는 경외지심에 바탕을 둔 외면적 무지 즉 내면적인 신비주의적 자각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제우의 이러한 시천주사상이 근대적 개인의 인격적 존엄성에 대한 사상적인 기초를 주고 있음은 사실이다. 즉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상하주종의 지배복종관계로서가 아니라 대등한 횡적인 평등관계를 갖도록 가르쳐줌으로써 근대적 사회관의 선구적 사상이었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人乃天」이라는 말은 1907년에 천도교 중앙총부가 발행한 교회서적 가운데의 하나인 「大宗正義」에 천도교 원조의 사상의 요지로서 처음으로 내세워진 글인데 이 「大宗正義」는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다.<sup>1)</sup>

따라서 손병희의 사상을 고찰하는데 있어서 그의 이름으로 발행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간에 당시의 천도교 출판물에는 천도교 지도층의 정신과 사상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출판물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그의 사상을 살펴야 할 것이다.

이 인내천이 나오기 이전인 1899년에 손병희가 지은 「覺世眞經」「授受明實錄」「道訣」「明理傳」(1903)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사람과 하늘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人以侍天)(각세진경)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뜻은 「사람의 性과 心이 하늘에서 나왔다」는 의미로 사용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은 곧 天人」이다(人是天人)(명리전)라는 표현이 나오고 「사람은 하늘의 뜻을 맡아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당시 거의 표어로 된 듯한 이 「人是天人」의 표현을 쓴 것은 인간의 性과 心을 떠나 따로 하늘(天主)과 같은 어떤 의지적인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려고 했던 것 같다.

1) 崔東熙, “天道教思想”, 「韓國現代文化史大系」3, 高大民族文化研究所, 1982. p. 671.

여기에는 특히 性理學的인 해석이 엿보인다.

따라서 곧이 天主라는 표현을 피하고 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리고 그 天을 음양변화의 근원인 一氣와 같은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따라서 그 天은 결국 천지만물의 생성을 설명하기 위한 원리 혹은 근원으로서 생각되는 것이다. 곧 철학적인 만물의 근원일 뿐이고 종교적인 외경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人乃天은 「대종정의」에 최제우의 사상의 요지라고 하여 천도교의 종지가 되었다.

여기에서 인내천은 「자기 마음을 스스로 숭배하는 것」(自心自拜)을 의미하는 듯이 보인다.

그 후 1909년 발행된 「無體法經」에서도 性과 心의 관계에 대하여 性이 心보다 더 근원적이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性이 열린 것이 곧 心이 아니고 性이 열린 것은 곧 良境이고 이 良境속에 萬理와 萬事가 들어와 운용하는 것이 바로 心이라고 한다.

따라서 心은 만리만사와 열린 性의 합작인듯 하나 사실은 만리만사란 곧 열린 性일 뿐이다.

그러므로 열린 性의 미묘한 움직임이 곧 心이다. 그리고 心은 결국 「氣運」 곧 氣의 운동이라고 한다.

이리하여 心의 근원은 性인 동시에 氣이기도 하여 앞에서 만물이 하늘에서 나왔다고 하는 논법과 같게 된다. 결국 性이란 心과 동질적인 것이고 一氣와 같은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어 性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과 자기의 정성이 관계되는 일이라고 한다.

즉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달으면 그 몸이 곧 天이고 그 마음이 곧 天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自心自覺)이 전제 조건이긴 하나 사람의 몸이 곧 天이고 사람의 마음이 곧 天이라고 하는 것이 人乃天을 의미할런지도 모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상제나 천지, 삼라만상도 다 내 마음이 되어 「하늘을 모신다」(侍天)는 것도 사실은 「내 마음을 내가 모신다」(我心我侍)고 된다. 결국 내 마음 이외에 天이 따로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 곧 「사람이 곧 天이다」(人乃天)라는 것을 밝히려 한다.

이처럼 성리학의 입장에서는 心이 곧 天이고 心이 곧 理이며 心밖에 사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의 心이 곧 天이라는 뜻에서 인내천이라고 했다면 이것은 성리학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大宗正義」에서는 분명히 철학으로 따질 수 없는 신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신은 곧 天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천도교가 동학의 원조를 최제우로 하는 이상 「東經大全」 「龍潭遺詞」에 나오는 천주, 하느님의 의지적인 신을 가리키고 있고 주문의 「시천주」나 종교적 실천의 측면에서 볼 때 天을 理나 一氣나 心등으로만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는 天을 어떤 초자연적인 신으로 이해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당시에 민주적이며 합리적인 서양의 근대사상이 흘러들어와 개화(근대화)가 구가되는 당시에 애써 색다르게 풀이하려고 했을 뿐일 것이다.

또 「大宗正義」에서는 천도교의 본질적인 요소는 충실하여 조금도 더 보탬 필요가 없으나 새로운 사상으로써 이것을 발전시키고 빛나게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교리의 사상을 새로 발전시키는 방향이 서양의 근대적인 사조에 따르는 무신론적이며 합리주의적인 방향이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교리의 철학화라는 방향에서 천도교의 사상적인 요지가 인내천이라는 색다른 풀이를 하게 되었고 이 인내천을 역시 철학적으로 풀이하려고 했다.

그리하여 理라면 형체를 가지고 있는 氣와 결합되어 있고 정신이라면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聖訓演義」(p.5)에서는 天은 유형하다고 하여 無形한 理나 정신이 어떤 형체와 결합되어 있다는 식으로 인내천을 논증하려고 했다. 그러나 天은 과연 무엇이나 하는 문제가 남을 뿐 아니라 天을 一氣, 理, 혹은 정신등 여러가지로 보는데 그치게 되면 이론적인 혼란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인내천을 논증하려는 문제는 뒷날 다시 해결할 숙제로 남게 되었다.

그리하여 1910년대에 李敦化는 「천도교회월보」(제 2권 제 2호)에서 인간의 본성이 天에서 유래하였기 때문에 사람의 본성은 순수한 天이고 현실적인 사람을 天이라고 할 수 없다는 식으로 성리학적인 풀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인내천을 이론적으로 설득하려고 하면 사람의 본성이 곧 天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해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인내천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지적인 신을 전제로 해야 하는 兩理論의 갈등과 모순이 존재함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이처럼 3·1운동 이전의 1910년대의 인내천사상은 1920년대를 기다려야 좀 더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의 손병희의 인내천사상이 정치면에 적용될 때에는 만인평등주의의 민주주의적인 방향이 된다.

따라서 君臣父子의 유교적, 봉건적, 위계적 사상을 대치하여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주장하고 만민의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이론이 된다.

서양사람은 이 세상의 운수를 타고 인간을 똑 바로 파악하여 저마다 활발히 노력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를 거듭하여 재주(기술)가 반드시 뛰어나게 되고 기계가 편리하여 일하면 성공한다. 정치가 의례히 밝아서 군주와 인민의 책임이 서로 지켜지지 않음이 없다. 그러므로 공화제와 입헌제의 정치가 그 지역에 꽃피고 그 이름이 세계에 알려졌다. 이것이 곧 동양과 서양이 뒤집힌 까닭이 아닐까?

아! 옛날을 살펴 지금에 미치고 지구를 전체적으로 따져본다면 군장이란 비로소 인민속에서 선출된 것을 부르는 이름이다. 사람이 날 때부터 군장으로 자라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민만이 오직 나라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불보듯이 명백하다. 지금 우리 동양은 그렇지 않다. 군주가 인민을 총같이 보고 인민은 군주를 호랑이의 위엄같이 보고 있다. 이것이 곧 가혹한 정치의 억압이다.

—明理傳—

서양인은 근대 과학의 연구를 통해 기술을 발전시켜 기계에 의한 산업발달을 이룩했다는 것이다.

또 한편으로 공화제도와 입헌정체와 같은 민주적인 정치가 서양에 널리 실시되어 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군주제를 비판하고 요즘의 국민주권의 사상에 가까운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 2. 三戰論

손병희는 1897년 37세에 최시형의 후계자로 천도교 3세 교주가 되었다. 그러나 그는 지하에 숨어서 제한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1901년 개화된 외국의 물질도 살필겸 외유의 길에 올랐다.

처음의 목적지는 미국이었으나 미국행 선편과 여비 조달이 여의치 않아 우선 잠정적으로 일본에 체류하게 되었다.

손병희는 동학의 도통을 이어받은 제3대 후계자라는 종교적 사명감 못지 않게 조국에 대한 정치적 사명감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적국인 일본을 살펴보고는 국가의 독립을 더욱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의 개화를 보고도 그의 정신세계에 일대 각성을 하게 된 손병희는 급거 귀국하여 우선 24명의 학생을 데리고 다시 도일하여<sup>2)</sup> 이들 학생에게 신학문을 배우도록 하는 한편 본국 신도들에게는 신앙과 포교활동을 촉진시키는 일방 우선 교도들의 의식수준 향상에 힘썼다.

그는 때때로 본국의 동학지도자들을 일본으로 초치하여 외국문물을 보여주고 또 교회운영방법과 수도 體行의 지침을 시달하였다.

이리하여 1894년의 갑오혁명후 지리멸렬된 교도들을 재수습하는 한편 서북쪽으로 교세를 뻗치어 갑오혁명에 피해를 받지 아니한 함경도·평안도의 양도에 동학을 포교하여 1903년경에는 벌써 수십만의 새로운 교도가 서북지방에 퍼져 있었다.

그리고 이 무렵 한국의 정세는 청일전쟁으로 승리한 일본이 청국세력을 몰아내고 대륙침략의 야심을 노골화하면서 한국을 일제의 군사기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정 러시아의 남진정책과 이해가 상충되어 드디어는 노·일간에 개전설이 떠돌 정도로 그 형세는 매우 악화하여 갔다.

이리하여 노·일간의 전쟁가능성을 알게 된 손병희는 조선 조정이 압도적으로 러시아의 세력 밑에 있으나 일본인이 계속 우월권을 강력히 시도하고 있으므로 조선에 어떤 변화가 올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했다.

그는 당시 그와 같이 일본에 있던 지도적 교인들 몇몇과 조국에 대한 전망을 토론했다.

그는 지금 노·일전쟁설이 성행하는데 동양사람 더욱 한국사람으로서 범연 좌시할 수가 없으며 노·일전쟁은 곧 만주와 한국을 다투는 전쟁이라 일본이 이기면 한국과 만주는 일본세력하에 들어갈 것이요 만일 러시아가 이기면 러시아의 세력하에 들어갈 것은 뻔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를 당하여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으면 한국의 운명은 풍전동화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2) 義菴孫秉熙先生傳記, pp.170-171.

그는 만일 이러한 때에 정부요직에 있다면 실로 계책이 없지 않을 것이며 그 계책은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다.

그 계책이란 첫째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면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하는 것부터 알아야 할 것이요, 둘째 이길 수 있는 나라를 안 뒤에는 이길 수 있는 편에 가담한 후 공동출병을 해서 전승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할 것이고 셋째 전승국의 지위를 얻은 후에는 강화담판을 할 때에 국가안전의 조약을 체결할 것이니 이런 좋은 기회는 천고에 다시 만나기 어려운 것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일 노·일 전쟁이 시작된다면 반드시 일본이 이기고 러시아가 질 것이 틀림없오.<sup>3)</sup>

그는 먼저 노·일 전쟁에서 승리하는 편에 가담하여 공동출병하여 전승국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 후 전쟁이 끝난 후 강화조약을 맺을 때에 국가를 만전케 할 조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일본이 러시아를 이길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로 지리적 관계로서 출병과 군사물자 수송에 있어서 일본이 러시아보다 유리하다고 하였다.

둘째로는 전쟁하는 목적으로서 러시아는 남진하여 부동항을 얻으려는 야심밖에 없으나 일본은 이민정책상 국가존폐의 생명을 걸고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동기에 있어서 일본이 더욱 강하여 전쟁 승패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셋째는 전술 전략과 병기문제로서 러시아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군사훈련과 병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일본은 어느덧 청일전쟁이래로 근대적 군사훈련으로 육군의 정예화와 병기의 기계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up>4)</sup>

그런데 당시의 한국 조정은 정부대관들 거의가 친로파 일색이며 임금이 또한 러시아 공관에 가있는 형편이므로 이러한 계책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인의 힘으로 먼저 친로파를 제거하고 전쟁시기를 선용하여 국가안전의 계책을 도모코자 하는데 이것은 미리 일본당국과 약속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sup>5)</sup>

따라서 손병희는 동학교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친로파를 제거한 후에 전기한 계책을 따라야 한다고 하였다.

일찌기 1894년 동학혁명때 반일 구국운동을 폈던 동학교도들이 10년이 안된 1903년에 와서는 친일구국운동을 펼치지 않으면 안될만큼 한국의 국제정세는 참으로 위급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쿠데타 및 친일 협력계획은 그의 동생 孫乘欽과 日人 田村의 죽음으로 실패에

3) 夜雷 李敦化 編述, 「天道教創建史」 천도교중앙 총리원장판. 경인문화사, 1973. p. 32.

4) Ibid., p. 32.

5) Ibid., p. 33.

돌아갔다.<sup>6)</sup>

이에 손병희는 이 계획을 포기하고 1903년 말에 날로 클러만 가는 한국 내정에 대하여 유학생 李仁淑으로 의정대신에게 그리고 李泰淵으로 법무대신에게 각각 건의문을 보내었다.

먼저 의정대신에게 보내는 건의문에서는 보국안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임금이 외국 공관에 가서는 안됨을 지적하고 국민들이 일치단결·합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리고 노·일전쟁이 일어나 승패가 결정되면 국가보존하기가 어려움을 경고하였다.

또한 현대 세계를 보면 공화·입헌·전제의 세 가지 정치가 있음을 논하고 정치의 성패는 행정의 유능하고 정치지도자가 유능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눈앞의 시급한 과제로 財政·道政·言政의 三政을 들고 있다.

원래 三戰論은 1902년에 손병희가 국내에 있는 동학교인들에게 동학세력의 선봉적인 임무를 강조하는 뜻에서 교양자료로서 보내온 것인데 삼전론은 도전·재전·언전의 순서로 되어있는데 반하여 이 건의서는 재정·도정·언정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

첫째로 재정은 천보의 물화요 생민의 이용으로서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소위 문명제국은 물리 화학에서 이치를 꿰뚫어 진기한 보배를 수 없이 수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발 같고 우물과는 것만을 알고 있어 안락에서 침잠하여 있는 고로 농·상·공업이 진작되지 못하고 재산이 쌓이지 않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제조의 기술을 알려고 하지 않고 편리에만 매혹되어 외국물건을 사서만 쓰고 있다고 개탄한다. 그는 이어 말한다.

대저 하늘이 내린 재산은 이를 써 버리면 다함이 있고 인조는 증가함만 있고 줄어듦은 없나니 이런 유한한 재정을 소비하여 저 다함없는 물품을 구매한 즉 재산을 무엇을 좇아서 보호하리잇가? 그 실상을 연구하면 그런 즉 사람 사람마다 각각 국토를 팔아가며 날마다 쓰고 있는 것이라 진실로 이러하고 그치지 않으면 그런 즉 삼천리 강토가 얼마되지 않아 다해버릴 것이라.<sup>7)</sup>

즉 외국상품을 수입하는 것은 곧 국토를 팔아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광산이나 선박·철도등이 외국 사람에게 다 들어가버려 우리의 재산은 실로 빈 껍데기 뿐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깨닫고 성의를 내지 않으면 나라를 보호하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민으로서 논하더라도 외국사람은 재주와 기예가 크게 통달하고 우리 나라 사람은 이처럼 몽매 하니 외국 사람이 어찌 그 홀로 현명하며 우리나라 사람이 어찌 그 홀로 우매하리잇가? 치밀하게 사유하건대 이런 이치가 만무한 것이라.<sup>8)</sup>

동서양의 인간이 모두 동일한 것인데 서양인은 먼저 사물의 이치를 꿰뚫어 인재를 양성하고

6) Ibid., p. 33~34.

7) Ibid., p. 37.

8) Ibid., p. 38.

그 기술에 통달하여 진보하게 된 것이라고 논하고 우리도 빨리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그렇지 않으면 백성은 곤궁하고 재물은 다 되어 각 개인의 호구지책도 어렵게 될 터이므로 국가의 독립은 어떻게 될 것인가고 묻고 재정에 힘을 쓸 것을 권고하였다.

두번째로 도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정이란 주교를 이름이니 화민성속의 정책입니다. 나라에 주교가 없어 백성이 성품을 저느리지 못하고 각자 위심하므로 정법이 시행되지 아니하니 이따므로 예나 지금이나 나라에 도가 없이 흥성한 나라가 없는 것입니다. ...무릇 우리나라에 전해진 교는 미연중에 최하여 사기가 박약하므로 홀로 자가의 고루한 것을 지킬 뿐 천하대세를 깨닫지 못하니 지금 만국교동의 운을 당하여 이같이 하고서야 어찌 능히 국가를 보전할 수 있겠습니까?<sup>9)</sup>

그는 나라에 주된 종교가 없기 때문에 정법이 실시되지 못하여 나라가 어지럽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기성종교는 이미 쓸모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는 동학이며 동학교도가 800만이나 된다고 하였다.

그는 어디까지나 도를 통해야만 백성이 화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백성의 마음을 화하고 백성의 권리를 선양하고라야 새 천하를 대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고 백성 화하는 근본은 도이니 둘째로 필요한 것이 도정입니다.<sup>10)</sup>

손병희는 세째로 외국의 물정과 법률을 잘 알아서 사리를 깨달아 외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서둘러 청년 제자를 유학보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법부대신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해관계로 인해서 노·일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으나 일본이 이긴다고 해도 황인종과 백인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백인종 즉 英·美·法·德의 각국이 일본이 강대해질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고 러시아가 이긴다 해도 러시아가 강해질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전쟁에는 국제적인 중재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이러한 중재행위가 있기 이전에 전쟁중에 한국을 경영하려 하고 있고 외교행각을 벌려 국제적인 갈등을 피하는 동시에 전쟁중에 한국의 경제권을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본의 무력적 침략행위를 막을 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시급한 일을 말하였다.

누아래 절박한 화단을 막는 방책은 저 왜적이 꾀를 이루기 전에 정치를 개선하고 조정에 독립의 세력을 깊이 세워 주권을 보존할만 하고 국민이 개명을 시작하였다는 만국의 인정을 받아야 권력을 가히 보전할 것인데 아직 우리나라 백성은 학문에 숙달치 못하여 이것을 행할 수 없거니와 우리나라 8도내에 「사람」은 아직 예대로 있으니 사림가운데서 유지를 가리어 몇만명을 모집하여 무엇으로 이

9) Ibid., p.39.

10) Ibid., p.41.

름을 하든지 민회를 설립하고 대소사를 의논케 하여 정부가 교섭하면 외교실력은 미달하지마는 창생보존할 정신은 끝수에 젓어들 것입니다.<sup>11)</sup>

그는 정치의 혁신을 주장하고 사람가운데 몇만명을 뽑아 민회를 구성하여 외교적인 뒷받침을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민회는 요즘의 국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한듯 하다.

그리고 만일에 이러한 정치적 개혁을 서두르지 않는다면 인도와 애급과 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하루 빨리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는 것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하였다.

결국 그의 경고는 불행히도 적중했으며 그의 정세분석은 옳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손병희는 노·일전쟁이 일어나자 동학의 지도적 인물 40여명을 동경으로 불러 다음과 같은 세가지 보국안민정책을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최상책은 대거혁명을 하여 새 임금을 세우는 것이고 중책은 악정부를 소탕하고 신정부를 조직하는 것이고 하책은 전쟁에 간여하여 전승국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인데 현재의 상황으로는 하책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학교인 수십만이 전쟁에 간여하여 일본측과 교섭·한정개혁의 밀약을 맺은 뒤에 일본을 도와 러시아를 친 다음에 국권을 잡고 국정을 혁신하면 한국은 재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12)</sup>

또한 그는 이 해에 민간인들로부터 부당하게 모함을 받아 동학교도들이 노·일 양군에게 학살을 당한데 대해서 도인에게 유서문을 보내어 일본이 승리할 것이므로 일본군에게 협력하는 것이 국권회복에 용이한 일이라고 하였다.<sup>13)</sup>

그러나 당시의 정부는 이러한 손병희의 정책을 받아들여 실행할 의도조차도 없었고 오히려 동학을 탄압했던 것이다.

### 3. 甲辰開化運動

손병희는 1904년(갑진) 2월에 일본에서 동학 지도자들을 만나서 국내에 가서 국내의 신도들을 조직하여 민회운동을 전개하도록 지시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귀국과 동시에 大同會를 조직하여 동학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까지도 동학은 정부의 심한 탄압을 받아 오직 지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다.

당시의 皇城新聞에 의하면 세 사람이상에게 전도했다고 하여 동학교도들을 포살했다고 했으며 도내 각 군에 동학이 크게 일어나 뜻밖의 일이 일어날 염려가 있다고 하였는데(1904년 4월 12일자) 이는 민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이 신문 6월 2일자에는 泰仁 군수가 동학교도를 체포하여 소위 錄名冊子를 발견했는데

11) 李光淳, 「義菴孫秉熙」, 태극출판사, 1970. p.172.

12) 이돈화. op. cit., p.43.

13) 이광순. op. cit., p.175.

도당이 수천명이라고 했는데 이 녹명책자는 대동회의 회원명부인듯 하고 그 회원이 수천명이라고 한 것이다.<sup>14)</sup>

또한 6월 24일자에는 서북지방의 동학도들은 大包가 수만명이며 小包는 3·4천명이라고 하고 노·일전쟁이후로 동학신도들의 활동이 활발히 되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대동회의 활동으로 이 이전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동학교도의 활동이 크게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7월에 대동회는 中立會라고 개명했으나 회명을 고쳐도 그것이 동학의 집단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었다.

동학의 조직체가 너무 커져서 세상의 눈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관원들은 어리둥절하여 그것이 지난날의 「동학당」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무턱대고 탄압하려고 날뛰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의 희생도 많았으나 당국에서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일어나는 동학의 신도활동을 막을 수가 없었다.

한편 황성신문 7월 29일자에 의하면 손병희가 정부에 상서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다음의 5개 조목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1. 국회를 구성할 것
2. 종교의 신앙자유를 허용할 것
3. 재정을 정리할 것
4. 정치를 개선할 것
5. 해외유학을 장려할 것<sup>15)</sup>

여기에서 종교의 신앙자유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 것이 특히 주목을 끈다.

즉 동학이라는 이름으로 백일하에 나서기는 아직도 까마득한 일이었다.

그러나 손병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민회운동을 더욱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이해 9월에 그는 權東鎭, 吳世昌, 趙義淵 등과 상의하여 회명을 다시 進步會라고 고쳤다.

그리고 새 취지, 강령, 규칙을 만들어 국내로 보내는 동시에 李容九를 귀국시켜 이 진보회를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0월 8일에 전국에서 일제히 개최하고 단발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발족한 진보회는 어느덧 전국 13도 각군에 그 지부를 두게 되어 그 기세는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그리하여 동학도들은 경향 각지에서 일제히 개최하고 단발혹의로써 죽음을 결하여 정부개혁, 국정갱신을 절규하니 이때에 회원 단발된 자 20여만인에 달하고 八域 각군에 진보회의 거처가 임립하니 실로 천지에 장관이오 우주간 대경사였다.

韓廷의 폭악한 압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진보회원 11만여에 달하여 제림 8도를 풍미

14) 崔東熙, “甲辰開化運動과 義菴先生”, 「나라사랑」 제 7집 1972. p.42.

15) Ibid., p. 44.

하기에 이른 것이다.<sup>16)</sup>

이리하여 정부는 진보회의 조직을 지난날의 동학당의 기포로 단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하라고 하였다.

이에 일본의 세력을 업고 있던 一進會는 한국정부의 관리들은 친로파라고 공격하는등 압력을 가하여 진보회를 도왔다.

한편 정부도 더 버틸 수 없게 되어 11월 1일에 그동안 감혀있던 각지의 진보회원을 석방케 하였다.

이는 진보회가 비로소 국가의 공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며 동학이 40년만에 지하운동을 청산하고 공공연히 활동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지방관리들은 진보회가 지난날의 동학당이라고 계속 탄압했기 때문에 진보회는 12월 2일에 일진회와 합동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조종을 받는 일진회에 합동한 것은 진보회 즉 동학의 큰 비극이었다.

한편 전술한 단발에 대한 지시는 4월에 박인호 홍병기 이용구등이 일본에 가서 손병희를 만났을 때 내려진 것이다. 손병희가 말한 단발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인으로 하여금 세계문명에 참여하는 표준이 되게 하는 것이요. 둘째는 도인들이 일심단결하는 의지를 굳게 하는 것이니 이런 때 도인은 먼저 용기를 떨치게 하라... 대신사(수운선생)께서는 대도를 위하여 단두대에 목을 내베시었는데 복대신 머리털썩이야 무엇이 어렵겠느냐? 예로부터 은혜를 갚기 위하여 머리털을 베어 신을 삼아 바친다 하였으니 이번에 우리가 단발하는 것은 국은과 사은을 아울러 갚는 일이요 또 우리가 단발을 하고 세계문명에 참여한 뒤에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 이 뜻을 일반도인에게 잘 알리게 하라.<sup>17)</sup>

이것은 세계문명에 참여하는 목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들의 심지를 일치하게 하는 단결력도 과시하는 것으로 이런 때에 용기를 내어서 난사를 쾌도로 끊으라는 것이었다.

이는 또한 甲午更張時 高宗이 시행하려다가 철회한 단발령에 대해 頭可斷 髮不可斷이라고 반대했던 유학말류의 부유들이 격심한 반대를 불러 일으키기에 즉할만한 당사로서는 급진적인 개혁운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 4. 政教分離

손병희는 이용구가 일진회에 들어가 친일적인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이용구를 반성케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그는 1905년 8월에 도인들이 이용구등의 책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敬句를 반포하였다.

도를 행하는데는 반드시 두 계단이 있으나 첫째는 주정이요 둘째는 주지이다. 주정으로 말하면

16) Ibid., p.45.

17) 이현중, "갑진개화운동의 전말" 「동학사상논총」, 제1집. 천도교 중앙총부. 1982, pp.113~114.

주권과 책략에 다름이 없고 주지로 말하면 종지의 표준이 되는 것이니 주정을 얻지 못하면 또한 주지도 달치 못한 것이니 주지를 달치 못하는 도가 어찌 천리간에서 그 도를 행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지금에 지나간 성인의 사적을 보아도 환한 일이다.<sup>18)</sup>

그는 정치 곧 국가가 독립·부강한 다음에야 종교가 존재함을 분명히 하였다. 그는 이 경고에서 보국안민을 통해서만이 주정도 그리고 주지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국안민의 첩경은 교육에 있다고 갈파하였다.

.....그러면 각각 새로운 지식을 힘써 배우게 하여 한 개인의 자유독립으로 단체를 이루어 자유독립의 국가를 만들면 그 근본이 공고하여 자연히 「안민」이 되나니 그 중추를 잡고 그 방향을 바르게 하면 이것이 「보국안민」의 제일책이고 보국안민의 각 부분의 방책은 지금 세상에 모든 학문이 이것이다. 교육을 힘쓰는 곳에 그 나라의 인사로 하여금 도는 학문을 능히 숙달케 하여 자유의 개인신분을 완성하면 사람은 개명한 사람이 되고 나라는 문명한 나라가 되는 것이다. 각각 그 직업을 지키고 각각 그 도를 즐겨하리니 이것이 일대 자선의 도, 광제창생의 길이다.....<sup>19)</sup>

그는 개인이 자유시민이 된 다음에 단체를 이루고 그 단체가 모여 자유국가를 이루는 것이 보국안민의 길이라고 하며 그 시발점은 교육에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자유민을 기초로 한 자유민권사상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輔國安民」「廣濟倉生」이란 구호는 이미 1894년 동학혁명때 나온 것이며 당시의 무력항쟁 방법으로 한 것이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교육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이어 1905년 11월에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자 손병희는 곧 갑오혁명이래로 풍지박산이 된 동학교단을 근대적인 민족종교로 재건하기로 결심하고 1905년 12월에 「東學」을 「天道教」로 개명하여 천하에 선포하였다.

그가 동학을 천도교라 한 것은 일찌기 교조 최제우가 「道는 비록 天道나 學인즉 東學이다」고 한데서 동학의 본이름인 천도를 교명으로 한 것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비정탄핵의 상소문으로 하여 손병희를 체포코자 하던 차에 새로운 종교의 교주가 된 이상 차라리 보호는 할지언정 방해할 수 없다는 세계공론에 의하여 부득이 천도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동학이 천도교로 재출발하였다는 사실은 창교이래 이때까지 주문 한번 마음놓고 소리내어 외어 보지 못하던 동학교도들에게 실로 큰 기쁨이었다.

관군이냐 이웃사람에게까지 지목을 받다가 도리어 탐관오리들을 감시하고 자유왕래하며 건의할 수 있는 신분이 된 것이다.

손병희는 1906년 1월 5일에 만 5년만에 일본에서 귀국하였다.

그는 혼란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천도교에서 말하는대로 「사람은 곧 하늘이라 사람의 마음이 곧 하늘 마음이니 지금 세상이 이와같이 혼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혼란한 증거이니 먼

18) 이광순, op. cit., p.182.

19) Ibid., p.183-184.

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우리 도는 후천개벽의 도인지라 후천개벽은 인심 개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인심개벽은 정신개벽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정신개벽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천도> 그것을 잘 행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sup>20)</sup>

그리고 「나라에 국교있는 것이 사람에게 마음있는 것 같다」(國之有敎 如人之有心)는 연설을 하여 三戰論에서 말한대로 국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진회의 이용구등을 불러 일진회가 각군에 지회를 설치하고 정계 대소사를 간섭하고 있어 세력이 크다고 하나 지부나 지회를 막론하고 직원이 아직 사무에 능숙치 못하여 정당의 면목을 유지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옛날에 움추리고 살다가 돌연히 대기가 발양하는 시기를 만나게 되니 자연히 권리를 남용하는 폐해가 적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되면 도리어 사회의 비방을 면치 못할 것이니 서울에 본부만 남겨두고 지방에 있는 지부와 지회는 철폐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용구등이 시행하지 않으므로 政敎를 분리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敎와 會를 혼동할 수 없으니 이제로부터 그대들은 회무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순수 교무에만 종사하게. 이 때에 우리는 교국과 국교, 교정과 정교를 분간할 줄 모르면 국가와 교회일에 큰 관계가 되는 것이니 주종관계로부터 생각하도록 하라.<sup>21)</sup>

고 하였다.

이는 진보회를 통해 정치활동을 하려던 계획이 이용구등의 배신으로 친일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됨에 따라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천도교의 종교활동을 충실히 하려는 것이었다. 더구나 천도교마저 친일적인 종교가 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용구등은 끝내 손병희의 말을 듣지 않게 되어 1906년 9월에 이용구 등 60명의 친일 분자들을 몰당시키게 되었다.

한편 이용구등은 12월 13일에 자기의 당류 60여명을 거느리고 侍天敎를 세워 천도교에 대립하니 동학교도는 두 파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그가 교주를 물려준 김연국마저도 1908년 시천교로 가기에 이르렀다. 이에 손병희는 1월 18일에 박인호에게 대도주를 물려주었다.

한편 1909년에 들어서서 일진회와 시천교의 친일행각은 더욱 우심하여짐에 따라 12월에 鄭光朝를 시켜 대한매일신보에 시천교인에게 권유문을 즉 천도교의 發文을 발표하였다.

그런즉 일진회에서 나온 시천교의 신세가 더욱 가련치 아니한가. 일진회는 본래 시천교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악한 죄를 짓고 못 발길에 채어 죽게 되었는데 그 자식되는 시천교가 ~~어찌~~ 홀로 평안하리오. 어머니죽은 뱃속에 낙태되는 시천교가 너무 처량하다.

그러나 일진회는 죽어도 시천교는 죽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으니 우리 동포를 위하여 심히 다행하다.<sup>22)</sup>

20) Ibid., pp. 189~190.

21) Ibid., p. 191.

22) Ibid., pp. 209~210.

손병희는 시천교가 살려면 위험한 정당 성질로 조직된 일진회를 거절하고 벗어나서 순수한 종교적인 입장으로 돌아와 그 거절함을 세상에 공포할 것을 권유하고 거절치 못할 경우에는 시천교에서 자퇴하면 죄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1910년에 들어 일제의 발악은 더욱 흉폭해지고 민심은 흉흉하였다.

손병희는 7월에 수련생들을 모아놓고 국가의 운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각을 촉구하였다.

그는 교리를 배우는 사람은 세가지 희망이 있는데 첫째 자기를 위한 행복, 둘째 국가 민족을 위한 경륜, 셋째 교회와 인류사회를 위한 공헌인데 자기의 행복은 결국 국가와 사회 둘 사이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이 똑 같이 교리 강습을 받고 똑 같이 실행을 한다면 교회 확장은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장차 세상 사람을 동귀일체시키기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손병희는 국교를 천도교로 하고 국민이 모두 천도교에 따라 행동하는 동귀일체의 사상은 일종의 종교국가를 이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유명한 「천연적 경제」라는 설교를 통해 교육구국의 이념을 내세웠다.

...우선 시급한 것은 나라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리고 인간생활은 경제로 유지하는 것인데 경제에 착념이 없으면 한 가정도 국가도 살림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상사람이 말하는 이러한 경제보다 특별한 경제를 말하고 싶은데 그것은 즉 「천연적 경제」를 말하는 것이다. 천연적 경제란 지하자원이나 자연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 한 개인에게는 한 푼 이익도 없는 것이나 이 천연적 경제가 없으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저 경제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천연적 경제가 무엇이나 하면 사람은 일생일사가 정한 이치인데 죽을 때에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죽기전에 평상시에 그 자손을 대하여 바른 사람이 되도록 좋은 말을 들려주어 효유하는 것을 나는 천연적 경제라고 말하고 싶다.<sup>23)</sup>

그는 국가가 있어야만 교육도 경제도 필요한 것이라 논하고 경제도 일반적인 의미의 경제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획득되는 경제 즉 천연적 경제가 중요하다고 설교하고 있다.

한편 1910년 7월에 서울에는 콜레라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많았는데 8월 6일에 손병희는 다음과 같이 설교하였다.

그는 예전엔 동학에 의하여 신체적 기적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신앙심이 박약하여 유행병도 무서워하게 된다고 하면서 신앙심이 깊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느님이야 옛 하느님 지금 하느님이 다르겠는가? 지금 동서양을 물론하고 사람들의 정신이 과학과 철학으로 들어서면서 인심이 야박해지고로 서양의 종교가들도 말하기를 <사람들이 모두 종교성을 버리고 과학만 숭상하니 이대로 가다가는 세상이 어느 지경에 이를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면서 다시 종교성을 연구한다. 사진을 찍어도 대상이 있어야 찍는 것 같이 종교성의 근본은 하늘을 잊지 않는데 있는 것이요.<sup>24)</sup>

23) Ibid., pp. 228~229.

24) Ibid., pp. 229~230.

그는 종교적 신앙을 강조할 뿐더러 더 나아가 물질문명의 폐해와 과학지상주의의 불행한 결과를 예견하기까지 하고 있다.

오늘날 산업사회의 장애에 대한 비판론과도 견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8월에 나라가 망하자 손병희는 이러한 비극은 동학이 이미 예상하고 후천개벽을 주장해왔으며 선천의 종말이 확인된 이상 동학교도들은 후천개벽을 일으켜 왜적을 몰아내고 인내천의 지상천국을 세우기로 결심했으며 그 길을 종교와 교육에서 찾기로 했다.<sup>25)</sup>

### Ⅲ. 結 論

동학의 교리나 정치사상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人乃天은 제1대교주인 최제우로부터 제2대교주 최시형을 거쳐 그 해석이 발전해오다가 제3대교주인 손병희대에 와서 1907년에 처음으로 사용된 말이다.

그러나 정치사상면에서 볼 때 초기의 侍天主사상이 비록 아직도 초월적인 어떤 존재와 같은 성격을 띠었을지라도 그것이 1894년의 동학혁명을 일으킬 만큼 근대적 사회관의 선구적 사상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손병희를 비롯한 1910년의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의 천도교지도층의 人乃天에 대한 해석도 많은 변화, 발전을 해왔다.

처음에는 「人以侍天」에서 「人是天人」으로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다시 人乃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我心我持의 뜻으로 되어 내 마음이외에 천이 따로 없다는 것이 된다.

그러나 최제우의 시천주사상이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초월적인 신의 존재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본성이 곧 천이라 해야 할 것이므로 양 이론의 갈등·모순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손병희대에 와서 정치사상면에서는 군주제를 비판·거부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국민주권사상에 가까워지고 있음은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사상적 발전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1901년에서 1904년에 이르는 三戰論 시기는 손병희가 갑오 동학혁명 이후 지리멸렬된 교세를 수습하고 난세에 국가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시기이다.

그는 노·일전쟁에 대처하는 계책으로서 새 임금을 세우는 혁명전략과 쿠데타를 통한 새 정부 수립책이 있으나 이 양자는 시기와 상황이 부적합하므로 취할 수 없다고 하여 최하책으로 전쟁에 개입하여 전승국의 위치를 얻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일본이 이길 것으로 예상하고 일본과 공동출병하여 전승국의 지위를 얻어 강화담판을 통해 국가만전의 조약을 체결하고 동학교도가 국권을 장악하여 개혁정치를 한다면 국권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삼전론과 전의문을 통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25) Ibid., pp. 232~233.

삼전론 내용 가운데 첫째로 재정에 있어서는 외국인은 산업에 종사하여 국부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을 멀리하고 수입만 하고 있고 각종 원자재와 사회간접자본이 외국인의 수중에 들어가 빈 겹대기뿐이므로 재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는 가운데도 동서양인이 인간적으로 다를 바 없으므로 우리도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안될 것이 없다는 민족주체사상을 가지고 격려한 점은 오늘에 본받아야 할 점이다.

둘째로 道政에 있어서는 국가에 주교가 있어야 정법이 시행되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고 하면서 봉건적·폐쇄적인 재래 종교를 시대에 뒤떨어졌으므로 동학교로 주교를 삼을 것을 제안하고 동학교도의 수가 800만에 이른다고 하였다.

여기서 당시의 교세가 가장 강한 것이 동학이었다고 한다면 손병희의 도정론은 다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세계의 言政은 능숙한 외교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교육과 유학을 통해 세계 대세에 정통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바야흐로 난마와 같은 외세가 밀려드는 형국에 있어서 약소국의 살 길을 외교에서 찾은 점은 가히 탁견이라고 할 것이며 우리의 오늘에도 적용되는 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범부대신에 대한 건의서에서는 노·일전쟁의 진행상을 손바닥을 보듯이 분석하고 특히 일본의 간교한 침략정책을 꿰뚫어 보았다.

그리하여 먼저 일본의 책략을 분쇄하기 위해서 개혁정치를 행해야 하는데 우선 民會를 만들어 국민의 의사를 결집하고 국민의 단결을 도모하여 국가의 외교를 뒷받침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외교의 핵심적 전략을 채용하지 않으면 인도나 이집트처럼 망할 것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정부는 이러한 금과옥조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커녕 동학을 오히려 탄압한 탓으로 나라를 잃게 된 것이다.

손병희는 1904년에 이른바 갑진개화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지금까지 지하에서 활동하던 동학운동을 차원을 달리 표면화한 것이다. 일종의 민회 운동이라 할 이 운동은 대동회 또는 중립회, 진보회등으로 명칭을 갈아가면서 전개되었는데 단발과 흑의로써 죽음을 결하고 행해졌다. 그 목표는 정부개혁과 국정개선을 절규한 것으로 정부로 하여금 과거의 동학당이 되살아난 것으로 인식케 하여 많은 탄압을 초래하여 희생자가 많았다. 그러나 11월에 정부에 건의한대로 동학교도 종교의 자유를 공인받기에 이르러 40년만에 지상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발은 당시로서는 매우 급진적인 근대적 개혁운동이었다.

손병희는 政教分離論에서 동학의 보국안민사상의 전통을 이어받아 먼저 국가가 존재하고 부강하여야만 종교, 교육과 경제도 존재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당연히 국가를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제도 일반적 의미의 경제보다도 교육을 통해 획득되는 천연적 경제론을 설파하였다.

그리고 손병희는 당시의 세계상황을 참고하여 국내적으로도 빨리 종교적 신앙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물질문명의 폐해와 과학지상주의의 불행한 결과를 예견까지 하였다.

이 점은 현대세계가 당면한 산업사회의 비판론과도 비교할 수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Summary

A Study on Political Thought of *Son—Byung-hee*

*Jung Jin-o*

*Son—Byung-hee's* political thought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man's equality to heaven, three wars, *Gapjin* (1904) modernizing movement and separation of politics and church.

Criticizing monarchy, he asserted democracy and considered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Russo-Japanese war of 1904 as desirable.

He emphasized the state prior to church and economy.